



통권15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3. 1. 15.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 763-2606, 745-5604

역사의 그 도도한 흐름을 누가 막을 것인가?

홍 경 선*

후원회원 여러분!

복잡다단 하기만 하고 별로 신통치 않았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피나는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 보살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최대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 같이 계시는 어머님들, 누님들, 형님 동생들에게도 뜨거운 정 실어 새해 열렬한 축하인사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비록 획기적인 전진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진보는 있었다고 자위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에는 강물처럼 여울을 지난 잔잔함과 굽이를 지난 격류가 있듯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 도도한 흐름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새해에도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 이 글은 홍경선님이 새해 인사말로 보내주셨습니다.

홍경선 선생님(69세. 무기형. 27년 복역) 1925년 5월 21일 충북 조치원 출생. 전쟁전부터 입산해 유격대로서 유격전을 전개하였고, 52년 무렵 금강정치학원에서 학습. 함남 단천 마그네사이트 공장의 직업동맹위원장으로 근무하다 60년 남파 구속됨.

폐결핵으로 피골이 상접한 병약자의 모습이지만 항상 낙관적으로 살고 계심.

양심수 없는 해 마음열어 하나되는 해

새해첫날에
권 오 헌(양심수 후원회장)

통일염원 49년!

가슴 열어 하나될, 이 땅의 주인될, 새날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잠긴 옥문 열어 갇힌자 해방하고
쫓기는 양심들 뜨겁게 보듬을 그 열망·기대·
노력.

바로 통일로 가는길. 민주정부 세우는 일….
그 참담한 좌절을 딛고 다시 태양은 대지의
어둠 밝히며, 언땅 녹일 불덩이로 붉게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와 행운을 빕니다.
빈 감옥, 양심수 없는 세상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지난 1년간 뜨겁게 성원
해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
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게 한결같이 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집 안팎 일터에서 바쁜
가운데에도 언제나 후원회의 일손이 되어주셨
던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먼 이국 사회
의 낯선 어려움속에서도 조국의 자주통일 염원
과 고통받는 겨레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하며
성원해주신 재독 양심수후원회, 재독 한인교회
연합회 토요기도회, 워싱턴 수도교회, 로스엔
젤레스 양심수 자녀돕기모임, 재일 한국인 정
치범 구원회 여러분들과 서승 선생님, 이철 선
생님 그밖의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겨레의 뜨

거운 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후원회의 일반사업
들과 소식지 내는 일, 산행모임, 수련모임, 송
년모임들이 큰 힘없이 치뤄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43년을 맞게되는 장기수 선
생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양심수가 아직도
감옥에 있고 고향을 북녘에 두고 있는 분들의
'고향가는 일'이 묶여 있으며, '만남의 집 3'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
다. 이일들은 바로 후원회 일꾼들의 의지와 노
력 말고도 나라 안팎의 사정과 맞물려 있는 것
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해,
민가협에 대한 강제연행·압수수색 등 부당한
침해로 더욱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과 시련을 딛고 또 우리의 역
량부족을 깊이 반성하며 올해는 양심수 없는
해,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해로 열심히
일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언제나 성원과 꾸지
람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일이 양심수의 후
원·석방뿐 아니라 이 땅에서 더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는 자주 민주 통일로 이어지도
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새 / 해 / 말 / 쓴

양심수를 후원합시다

이 이 화

(재야국사학자,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현대에 사는 우리는 여러 모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9세기말의 혼란과 분열을 겪고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을 맞이 했으나 민족분단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괴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정에서 역대의 독재정권에 의해 반공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어 왔습니다. 이러는 사이 많은 인사들이 민족해방운동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민주실현을 위해 고문당하고 투옥되어 왔습니다.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은 요원한 시대의 모순을 겪고 있으며 민주실현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 속에 파묻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지금도 감옥에서 신음하고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이런 양심수가 이 땅에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양심수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천여명의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고도 없다고 떠벌이는 것입니까?

이들 양심수는 분명히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줄기찬 운동과 저항을 벌인 역사인입니다. 이들은 생업을 팽개치고 처자와 부모

를 돌보지 않고 도도한 역사의 대열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들의 경제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인권 변호사들과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들을 도와주고 있으나 아직도 손길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의 존경스런 후원으로 뜻있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후원의 손길을 뻗읍시다. 작은 한 푼을 보태주면 이들은 더욱 용기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민주시민의 동참을 더욱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이루는 거름이 되십시오.

1993년 민주의 여命을 기다리며 씁니다.

영원한 승자

이 기 형

(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나는 '패자의 눈물'이란 말을 싫어한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다. 싸움과 전진이 있을 뿐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김대중 씨는 외형상 패자지만 영원한 승자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다.

새 / 해 / 말 / 씀

긴 안목에서 볼 때 역사는 전진할 뿐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견지에서 전향을 거부하고 끔찍스럽게도 30년, 40년 이상 독방에서 지조를 지키며 투지를 달구는 초인(超人)들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영원한 승자다.

장기수와 양심수 여러분들의 건강을 안타까이 기원하며 아울러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사업에 헌신하는 여러 동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 마지않는다.

1993년에는 우리의 장기수와 양심수들이 모조리 풀려나 민주화와 조국통일에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굳게 손잡고 싸워 나아가자.

1993년 1월 3일 독립문 옆에서

모든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임 수 경
(평축참가 전대협 대표)

저는 지금 제 방으로 돌아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 4년만의 귀환입니다. 저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시간에도 차가운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을 많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차갑고 황량하기만한 공간에 놓아둔 채 저만 떠나온

것을 생각하면 그저 송구스럽고 가슴만 아플 뿐입니다.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고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제 머릿속에 가득히 자리한 그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그분들을 제 곁으로,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거리를 헤메이고 있을 수배자들에게도 편안히 쉴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곧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됩니다. “새롭다”라는 표현이 걸맞는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신중히 기대를 걸어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정부”라는 간판을 달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 과제는 양심수 석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양심수가 감옥문을 박차고 나오는 그 날, 모든 수배자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 그 날로부터 민주세상의 첫걸음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위해 우선 저부터 바쁜 행보를 내딛겠습니다.

그간 저의 석방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곁에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훨씬 더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의를 다져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더이상 아픈 눈물을 흘리게 해드리지 않는 참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감옥에서 온 소식

민가협의 구정 연하편지에 답함

백 두 옹*

백학이 담 넘어 물고 온 구정 연하의 편지
15척 콩크리트 담 어찌나 높던지
그 담 넘느라 닷새 낮 걸였다네
읽고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 보니
글월 보낸 님들의 고은 마음 헤아려지고
담 안에도 민주의 봄 찾아 올 것 같으네

청조야 백학타고 한양 땅에 날아가
민가협님들에게 이내 소식 전해다우
평화통일 외쳤다고 고된 징역 15년
그것으로 부족타고 감호징역 14년
29년 구메밥에 내머리엔 백설이 분분
그래서 내이름이 백두옹이라오

지금도 두주먹 높이 치켜들어
힘차게 외치나니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신로심불로」인가 「노익장」인가
고희의 고개 넘긴지 어언 여덟해
세월이 유수런가 나는 화살이런가
오직 그 날 그 때 만을 기다리는 백두옹의 이 심정

1989년 2월 15일

청주보안감호소 4사상 6호실에서

백 두 옹

* 백두옹(최남규 선생님의 다른 이름)

이 편지는 최남규 선생님(탕제원에 계심. 89년 청주감호소에서 출소)께서 89년 민가협에서 보낸 엽서를 받고 회답으로 보내 주신 글이다. 당시에 불허가 되어 93년인 지금에서야 글을 소개하게 되었다. 민가협에서 보낸 편지를 내어주지 않아 싸워서야 비로소 받아 읽으셨다 한다.

새해말씀
[소통마당]

다시
일어서
복찬새해

양심수들의 새해인사

그리스도의 平和,
自主,
統一

食口들께 問安드립니다. 이 땅에 平和를 為해 일하시는 兄弟 姉妹님들 苦難의 길을 두려워 맙시다. “과테말라”的 ‘리베르타 멘추’ 아가씨는, 農民運動하는 아버지는 保安軍에 私殺當하고, 어머니는 保安軍에게 强姦當한 뒤 나무에 매달아 여러날 굶겨 죽었고, 十六歲된 동생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뒤 그는 祖國을 품안에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愛情으로 저는 푸근합니다.

天下에 어떤 어려움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을 確信합니다.

진주교도소에서
서경원 올림

지난 해 지극정성으로 후원해 주신 대恩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는 성취의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에서
이상철 드림

•••••

謹賀新年
溫故志新으로 自主와 平和統一을 訴願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民主主義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와 福 많이 받으세요.

안동에서
조봉수 드림

•••••

일년간 어머님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의 애정어린 보살핌. 마음을 모아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부족한 내 자신을 더욱 정진하여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목포에서
현정덕 드림

•••••

밝아오는 새 아침에 충심으로 새해의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모두에게 가지 가지의 친절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과 고마운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옵고 새해에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청하고자 합니다.

새해에 더욱더욱 보주하시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늘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해의 인사를 올립니다.

1993년 새해아침에
대전옥사에서 최하종 올림

다시
열여덟
복찬새해

년말에 즈음하여 인사를 전
할 수 있으니 기쁩니다. 성탄
에 하느님 은총이 집안에 가
득하길 빌며, 새해에는 통일
의 문턱까지 갈 수 있기를 기
원합니다.

92년 12월
이창복 드림

••••••

92년 한 해도 저무는군요.
그간에 회원 여러분이 베풀
어주신 그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올리오며 93년 새해에 여
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
니다.

대전에서
윤용기 올림

평화 화합 통일사업에서 전
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원님들 가정에 만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
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교도소에서
홍문거 드립니다.

••••••

아쉬움과 시련속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올 해도 건강하
게 지냈습니다. 민가협 어머
니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
며, 새해 무엇보다도 건강하
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모든 양
심수들이 석방되어 어머님들

의 웃음진 모습을 그립니다.

원주에서
윤태경 올림

••••••

희망으로 맞았던 임신년도
기쁨보다 슬픔의 봉분을 가슴
에 쌓은 채 역사의 흐름속에
묻혀 버리는군요.

깊은 관심과 후의에 감사합
니다. 다같이 잘 살수 있는
자주 평화 통일의 새해를 맞
으며, 하시는 일에 뜻대로 성
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에서
안학섭 배

••••••

준엄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애쓰시며 힘있게 주시고 계시

다시 열여덟 복찬새해

는 민족의 형제적 뜨거운 사랑의 고마움, 심장깊이 새겨 두고 있습니다.

항상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에서
박문재 올림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여러분의 노고와 보살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과 많은 식구들을 돌보시며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도와드릴 날이 있기를 기억해 봅니다.

몸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워지 시길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전에서
김용수 드림

지난 기간 물심양면의 성의 어린 염려와 사랑으로 저는 건강히 잘 지낸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같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새해에도 아무쪼록 건강과 가정에 모든 것들이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전에서
최선묵

•••••••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이 성큼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민가 협의 활동이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격려해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종진 올림.

후원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는 이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 대전교도소에 계실 때 보다 비할 바 없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을 사회에서 만나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주교도소에서
김성만 드림

•••••••

안녕하십니까
민가협 어머니들의 건강과 사업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각 가정에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대전에서
김명수 올림

다시
을여성
백찬새해

“건강만세”
후원회원 여러분!
변혁의 길이 참으로 험하긴
험한 모양입니다. 모두들 무
거운 년말과 새해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젊은
사람들은 실망보다는 언제
는 우리 운동에 이만한 시련
이 없었던가 하는 배짱과 오
기가 앞섭니다. 겸허한 마음
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건강하십
시오!

1992. 12. 20
원주에서 임종석 올림

•••••

지난 한해동안 보살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
오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 밝은
웃음을 짓고 가족과 함께
축배를 올리는 날이 오고야
말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
다.

11월 30일 보내주신 정성

을 어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간 저희에게 보내주신 물
적·정신적 지원·격려에 보답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보
일것 같아 그날 정식으로 감
사의 뜻을 전해드릴 것을 약
속드리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가운데 하
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하시게
될 것을 기원드립니다.

1993년 1월 1일 대전
이현치 드림

•••••

오직 한길 참된 이길
새해에는 더 큰 결음으로

93년 정초에 전주에서
이수호 세배

•••••

지난해 여러모로 보살펴 주
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그곳에 계신 선생

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
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대전에서
김익진

•••••

바램이 컼었던 만큼 실망도
컸던 지난 한해를 마무리고
새해를 맞아 이렇듯 단단하고
새로울 수 있음은, 저희들의
등뒤에서 산맥과도 같이 굳건
히 서계신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더디지만 끊임없이 진보해
가는 역사의 진리가 있고 아직
도 절절하기만한 민중의 염원
이 있고 거기마다 회원 여
러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의
발걸음이 멈출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부디 건강하시길 마
음다해 기원합니다.

1993. 1. 4. 대전
송갑석 드림

A decorative block containing stylized Korean characters and symbols. At the top right is a sun-like symbol with rays. Below it is the character '나' (Na). To the left of the sun is the character '나'. Below '나' is the character '나'. At the bottom left is a stylized character resembling a 'K' or a 'G'.

회원들의 ‘새해 새희망’

밝은 새해에는 민가협'이란 단체가 없고,
이 땅에 '양심수'란 말이 없이
우리 모두 더불어 살날이 오기를 바라며....

— 최진만

• • • • • • • • • • •

작년 2월 후원회 식구가 되어버린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많은 동지(!)들과의 만남으로 기뻤습니다.

— 옥중 동지들과의 모순적 기쁨이라니!! —
올해는 모순적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총체, 공동체적 기쁨을 절실하게 기원해 봅니다.

- 이지은 2

• • • • • • • • • •

후원회원이라는 말이 우습지 않나요!
작게나마 편지라도 씁시다.

— 8 —

사랑하는 장기수 선생님, 하루 빨리 보고
싶어요.
올해는 함께 꽃구경을 가겠지요.

— 김길자

.....

통일로 가는 활짝 열린 길목으로 우리 모두 모입니다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하나된 함성으로 노래합시다

바랜도 하나, 갈길도 하나.

— 이득행

.....

03년 새해가 밝아습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모두 딛고 힘차게 일어
서시기

우리는 95년 통일을 맞이할 한민족입니다.

힘있는 모습으로 통일의 한길에서 만나뵙
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지요!

一一

다시 열여섯 백찬새승기

우리모두 함께 열심히…
가장 훌륭한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
그 이웃들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분발합시다.

— ?회원

지난 한해동안 양심수 후원회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93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소수의 팀이 아닌, 적극적인 개인 회원으로 최대식·김언경만 남아 제 몫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여울팀

모든 장기수 선생님들, 건강 또 건강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사랑·통일의 열정 함께 실어 15척 담당 안으로 띄워 보냅니다.

후원회원 1,000명 확보와 출소장기수 집 마련을 93년에는 반드시 성취합시다!

— 이대팀

백절불굴.

이 말은 우리를 위해 생긴 말입니다. 외세에 빌붙어 발악하는 반통일 세력을 타파하고 승리로서 통일을 이루는 숭고한 과업은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들의 지상과업이며 자랑입니다.

귀중한 건강과 함께, 행운과 함께, 상시 불망의 그 뜻과 함께 통일의 그날까지…

— 하종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랐던 일은 올해의 가장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한결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그리고, 참된 용기로 저희들의 귀감이 되어주십시오.

— 여혜정

역사에서 배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속에서 생활하는 후원 회원들과의 만남은 서로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여름
여름
여름

아무쪼록 새해에도 역사와 생활속에서 우리가 많은 배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 김승규

밤이 지나면 새벽은 오게 마련인 것이 자연의 진리입니다.

정지해 있는듯 하지만 역사는 변화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득한 믿음으로 아주 작은 발걸음이나마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행보이길 바랍니다.

— 작은 물방울 김순이

진지한 모든 것이 망해가고 있지만, 언제나 옳음이 이기고 옳지 못함이 진다는 진리가 진리일 세상이 이제라도 우리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바로 가둔자와 바라보고만 있는 자의 뜻입니다.

— 작은 물방울 송지복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도 항상 바빠 열심히 생활하시겠지요?

여러가지 사정상 계속적으로 송금을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한해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있는 한해였습니다.

항상 건투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성취되길 바랍니다.

- I-A 양심수자녀돕기 모임

혼자로는 벅찬

새아침

함께 열어요

다시

일어설

벅찬 새해

— 4 —

편지를 보냅시다.

후원회원 여러분!

새해 새아침,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나누어야 할 이때,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외로이 생활하고 계시는 장기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들께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편지 한 장은 따스한 입김처럼 수인들의 언 몸을 감쌀 것입니다.

■ 양희철 선생님(광주 5029) 1934. 9. 25일생(60세) 1963. 4. 24 구속, 무기형, 31년 복역

전북 장수군 빈농가에서 출생. 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서 자동차 운전도 하는등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였다. 60년 4. 19전후 시기에 전쟁중 월북한 형이 남파되어 대동월북.

그후 1년간 평양 초대소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다가 61년 남파되었다가 62년 하반기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받았다.

항상 웃는 낯에 낙천적이지만 위장병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 가족들은 형제 자매가 전주 서울 등지에 있다.

■ 최수일 선생님(전주 2041) 1939. 5. 25일생(55세) 1965. 3. 4구속, 무기형, 29년 복역

평북 의주의 빈농가에서 출생. 전후에 평북 청수에서 화학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당에 소환되어 대남공작원 수송암무인 안내원으로 있다가 체포되어 무기형을 받았다.

대전교도소에 이송되어 비전향수로서 특별사동에 있는데 그동안 가혹하고 무자비한 전향공작 속에서도 의연히 투쟁했으며 말수가 적고 묵묵히 실천을 우선하는모범을 보이며 생활한다.

■ 신광수 선생님(전주 2053) 1929. 6. 27일생(65세) 1985. 2. 16구속, 무기형, 9년 복역

경남 울산에서 출생. 6·25당시 서울 보성 중학 재학중 의용군에 지원해 인민군하사관으로 참가. 제대후 루마니아에서 유학. 귀국후 이북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65년 이래 일본에 파견되어 대외연락부 소속으로 정보공작에 참가했다. 85년 서울에 들어왔다가 안기부에 체포되어 사형수로 4년정도 복역하다 88년 12월 무기로 감형된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비전향수 특사에 수용중이다. 평양에 부인과 의대를 졸업한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살고 있다.

주소 /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88-1

전주교도소: 560-2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 알려드립니다.

■ 12월 1일 / 안기부가 민가협 사무실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의 1차 압수수색에 뒤이어, 12월 1일 밤 10시 10분경 또다시 침탈해 사무실을 뒤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12월 3일 / 송혜숙(중부지역당)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 12월 4일 / 태재준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 김병곤 선생님의 추도식에 참가했습니다.

■ 12월 7일 / 워싱턴 수도교회에서 성금 1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 12월 8일 / 양심수 후원회 12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노래의 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후원회 송년의 밤, 기타 후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산행 기획팀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후원회원 이정규, 최진만, 나명주, 김정은, 임은영, 신유호 (김언경, 최대식 님은 사전에 사무실로 방문)님과 집행부가 모여, 기획팀의 구성인원과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다음 3차모임은 1월 9일(토) 송록희 간사댁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 12월 9일 / 중부지역당 사건 정언영, 정인미, 임명규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구로동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황용갑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권낙기 선생님의 귀여운 따님을 보고 왔습니다.

■ 12월 10일 / '제44주년 세계인권선언의날'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9시 (세실레스토랑) 신동욱(중부지역당사건) 씨의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 12월 11일 / 전재순(민가협회원) 어머님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3년을 구형했습니다.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이 11일 12일에 있었습니다.

후원회원 이대팀, 시립대팀, 서울대팀과 서울대병원 노조원 그리고 음시롱팀, 작은 물방울팀 외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선과 날씨관계로 관객이 적은 것이 안타까웠으나, 전반적인 공연 내용은 좋았습니다.

■ 12월 12일 / 후원회 송록회 간사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해 줍시다.

■ 12월 16일 / 중부지역당 사건, 우진성, 김현찬, 은재형, 황인욱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 12월 18일 / 14대 대통령 선거의 날

■ 12월 19일 / 후원회 소식지 14호를 발송하였습니다.

신현부 회원과 임은영 회원이 애써주셨습니다.

■ 12월 20일 / “선생님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30여분의 장기수 선생님들과 후원회원 약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12월 21일 / 최호경씨(중부지역당) 재판이 있었습니다.

■ 12월 22일 / 조무하씨와 손병선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무하씨는 구형 3년을 받았고, 손병선씨는 모두 진술을 하셨습니다.

■ 12월 23일 / 재판이 있었습니다.

태재준, 이근희, 진용근, 윤정환, 임명규, 정언영, 정인미, 마윤종

■ 12월 24일 / 후원회 부회장이신 조무하씨가 보석으로 출소하셨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출소하신 조무하님께 회원 모두의 마음모아 축하와 위로를 전합니다.

■ 12월 24일 /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님이 가석방으로 출소하셨습니다.

■ 12월 28일 / 유가협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 12월 29일 / 민가협의 전재순 어머님이 집행유예로 출소하셨습니다.

■ 12월 30일 / 장기수 선생님들과 5년이상 실형자 113명에게 영치금 15,000원씩을 발송했습니다.

황인오, 변의숙, 양홍관(중부지역당) 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임수경대표 석방 환영모임이 6시에 아현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출소장기수분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500,000원을 드렸습니다.

■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과 각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연하장이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복, 서경원, 양희철, 류정식, 이남우, 방양균, 현정덕, 고성화, 이영재, 하종구, 박원택, 조봉수, 홍순철, 최종진, 김현장, 김태룡, 이남우, 이성우, 윤태경, 장병락, 박문재, 최선묵, 김형수, 조용우, 이경찬, 이공순, 김동기, 이상철, 이재룡, 안학섭, 김 철, 김성만, 최수열, 유한욱, 윤용기, 양정호, 홍문거, 김종식, 김정호, 최금섭, 민교협, 최남규, 주혜민, 이병일, 김용수, 김진국, 이장형, 김명수, 한상렬, 임종석, 우용각, 홍경선, 이종환, 최하종, 권양섭, 정주영, 김광삼, 여혜정, 임선순, 박창연, 신준영, 심재택, 이 철, 손성표, 이현치, 하태경, 이수호, 김익진, 송갑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LA양심수자녀돕기모임, 시카고 신지혜

■ 12월 구속자 현황

12월 1일 김영근(40, 전북도연맹 부의장)씨 등 4명 — 집시법

12월 4일 유홍선(24) — 유인물 배포

이영수(28, 교사) — 특정후보 지지발언

12월 5일 이봉우(34, 구로노동연구소 공동대표) — 특정후보 비난 책자 제작, 배포

12월 7일 구아무개(19. 재수생) — 백기완후보 선거운동 관련

신혜진(22, 노동자) — 김영삼 비난 유인물 배포

12월 8일 한희룡(20, 서울대)씨 등 2명 — 김영삼 비방 유인물 배포

신은진(22, 전국연합 회원) — 김영삼, 정주영 비방 유인물 배포

최현경(21, 전국연합 회원) — "

12월 12일 하용갑(23, 외국어대) — 김영삼 비방 유인물 배포

12월 13일 김병훈(22, 건국대)씨 등 2명 — 유인물 배포

12월 14일 황순주(21, 동아대)씨 등 4명 — 김영삼 비방 유인물 부착

■ 1월 재판현황

1월 13일	김현찬, 우진성(중부당사건) — 10시, 318호 함정희(중부당사건) — 2시, 311호 주병화(중부당사건) — 10시 신동욱(중부당사건) — 2시, 318호 황인욱(중부당사건) — 2시, 318호 김옥기(중부당사건) — 2시, 318호
1월 14일	김동훈, 고한석(중부당사건) — 2시, 321호 이원배, 최상(중부당사건) — 10시, 318호
1월 15일	이근희, 이강훈, 이영지(중부당사건) — 10시, 318호 김선채(중부당사건) — 10시, 423호 진용근(중부당사건) — 10시 30분, 318호 은재형(중부당사건) — 2시, 417호 조일준, 이규성(중부당사건) — 2시, 423호 민영완(중부당사건) — 2시 박미옥(중부당사건)
1월 17일	심금섭(국가보안법 사건) — 10시 30분
1월 18일	손병선(국가보안법 사건) — 2시, 424호 노중선(국가보안법 사건) 장기표(국가보안법 사건) — 10시 318호
1월 19일	김표무, 임인출(중부당사건) — 10시, 318호 양홍관, 최종만(중부당사건) — 2시 522호
1월 20일	김낙중(국가보안법 사건) — 2시, 417호
1월 25일	마윤종(중부당사건) — 2시, 318호 우진성(중부당사건) — 2시, 318호
1월 26일	김경태, 이승미(중부당사건) — 10시, 318호
1월 27일	김현찬(중부당사건) — 10시, 318호 우진성(중부당사건) — 10시, 318호 황인욱(중부당사건) — 2시, 318호 신동욱(중부당사건) — 2시, 318호

■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장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영치품 지원)
3. 시국시범 후원사업 (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비전 마련사업
(구로동 '만남의 집' 운영)
5.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자매결연 추진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	울	신	탁	은	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			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양심수 후원회 소식

보내는이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

받는이 :